신안군, 강력한 인권위원회 만들다

"백가지 정책보다 한가지 인권보호 중요"

"인권보호는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

신안군이 23일 신안군 인권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였다.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 ▲인권전문가 ▲군의원 ▲인권관련 사회단체로 인권보호를 위해 구성됐으며 신안군민의 인권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위원장으로는 김수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가 위촉됐다. 이번 인권위원장은 인권분야의 전문가로 前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역임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권위원회 활동으로 인권보호를 받게 됐다. 신안군 인권위원회 임기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2년이고, 임기 동안 신안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인권침해 등 인권 의제에 대해 심의, 자문, 권고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업무에 대한 대외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인 제1기 신안군 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여성, 근로자, 아동 등 인권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군민이 인권을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김수아 인권위원장은 "우선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이 되고, 전문가 자문과 군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권보호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아무 죄 없는 군민들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안군에 소재를 둔 사업장, 지역 주민, 공무원 등에서는 인권교육을 받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백가지 정책보다 한가지 인권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침해는 주변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강력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에 제정하고, 섬마을인권센터가 6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

㈜휴맥스모빌리티와 MOU 체결…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

목포시가 24일 ㈜휴맥스모빌리티와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휴맥스모빌리티는 친환경 전기차 공유와 최신 주차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022~31)에 참여해 친환경 선박 충전솔루션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부 국책사업 수주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 ▲정책 공동홍보와 마케팅 ▲지역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협업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 유망 신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제26회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영암군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26회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독후감을 공모한다.

제출된 독후감은 내용 이해도, 창작성, 완성도, 표현력, 기타 맞춤법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초, 중, 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한다.

그리고 최고의 상인 〈영암군 독서왕〉은 학생부와 일반부를 통틀어 독후감 응모자 1명에게 돌아간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고용부 협업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해 청람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생계지원으로 Ⅰ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과 훈련 참여수당)을 제공한다.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한해 일 경험 프로그램 직무체험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40여 명의 구직자가 취·창업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350-5517)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리더워크숍 개최…추진위원단 16명 대상

무안군은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소노벨 변산에서 무안읍 추진위원단(위원장 김하진) 등 16명을 대상으로 리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에 대비해 운영법인 설립에 관한 논의 등 의사결정과 전문가 자문·강연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탁시행 중인 농어촌공사에서 무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했으며, 센터준공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법인화 준비·조직구성에 대한 초청강연이 이뤄졌다.

김산 군수는 "무안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꿈틀이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위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각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365생활 SOC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미래 발전 계획 구상 '이장 소통간담회'

이상익 함평군수가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이장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가 이날 오전 함평읍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해 개최된다.

소통간담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들과 함께 민선8기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읍·면별 맞춤형 공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23일 함평읍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익 군수와 40여 명의 이장들이 참석해 '함평읍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각 읍면별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